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 하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주체106(2017)년 11월 28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성공

조선로동당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로서 지난 7월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제원과 기술적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가 지도하는 속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은 주체 106(2017)년 11월 29일 2시 48분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발사되였다.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는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였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로켓은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

형의 성공적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되였다고 긍지높이 선포하시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것으로서 우리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바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평양

국가 핵무력 완성의 력사적 대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대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전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지도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열과 정, 온넛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과학원에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새형의 로켓개발방향을 제시하시고 매일과 같이 세심한 지도를 주시며 《화성-15》형무기체계를 완성시켜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슬하에서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을 뼈에 새긴 결사관철의 선봉투사들이며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인 군수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9축자행발사대차를 만들어냈으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



와 열정을 총폭발시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연구개발하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 차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개발전투장과 발동기분출시험장들에 나가시여 실패를 수시로 직접 료해하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오늘의 성공으로 이끌어오시였다.

11월 28일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

험발사준비가 완료되였다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깊은 밤 로켓기술준비현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9축자행발사대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수로동계급의 깨끗한 총정의 마음이 깃든 자력갱생의 창조물을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발사대차를 흠잡을데없이 잘 만들었다고, 도장

도 미끈하게 잘하고 모든 요소들을 아주 세밀하고 견고하게 제작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대차개발전투에 참가한 공장로동계급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 발사대차체와 발동기, 대형다이아와 권양팔, 발사탁, 유압장치, 전기조종장치, 동력장치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어제끼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대차를 팡팡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사장에 나가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켓 수직화를 비롯한 발사전 공정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휘감시소를 차지하시고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3면으로 계속)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대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며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재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이 눈부신 섬광속에 육중한 동체를 드러내며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다.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화성-15》형무기체계의 전술기술적제원과 동작민음성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은 최대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50km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구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하였으며 전략무기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환경에서의 민음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것을 확정하였다. 특히 중간비행구간 자세조종 및 속도

교정에 의한 명중성, 추진력벡토르조종을 실현한 대출력발동기와 비추진력이 높은 발동기의 동작정확성이 확증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유도 및 안정화체계설계정수들의 정확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새로 개발완성한 9축자행발사대차의 기동 및 권양능력과 발사계통에 대한 동작민음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확증된 조종 및 안정화기술, 계단분리 및 시동기술, 재돌입 환경에서 전투부의 민음성들을 재확증하였다. 기동성과 명중성이 확고히 보장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무기체계는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명실공히 조선로동당식 무기체계이며 이로써 우리 국가는 미국본토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대륙간탄도로켓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단번성공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새형의 로켓무기체계개발에 참가한 전체 전투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여 올려 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 국방과학부문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성과는 조선로동당이 선택한 병진로선과 과학증시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역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

특할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한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질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핵무력강화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여 국가핵무력완성의 거대한 성공담을 쌓아올리시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이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김정은원수님의 전무후무한 핵무력건설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한 특기할 대사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지도속에 지난 11월 29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시험발사는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발사체 로켓은 최대정점고도 4 4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50km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하였으며 전략무기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환경에서의 믿음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정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무기체계는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제원과 기술적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다.

이번 시험발사에는 차체와 발동기, 대형다이아와 권양팔, 발사락, 유압장치, 전기조종장치, 동력장치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이 100% 국산화, 주체화된 9축자행발사대차가 동원되어 자기의 위력한 성능을 과시하였다. 이날 현지에 나오시여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공화국에 있어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빛나게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특기할 력사적사변이며 반만년 민족사의 대경사,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지금 온 나라가 이 소식에

접하여 기쁨과 환희로 명절처럼 들끓고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화성-15》형》, 《그처럼 바라던 국가핵무력완성이 실현된 이 기쁨과 감격을 무엇이 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배심이 더욱 굳세여진다》, 《미국인들의 눈이 뒤집혀지게 되었다》, 《우리 힘 꺾을자 이행성에 없다》...

돌이켜보면 오늘의 이 승리는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조선이 핵과 그 운반수단을 포기하게 하려고 악랄하고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왔다. 유엔에서 《제재결의》를 련이어 조작해내고 《독자제재》의 칼도 휘둘렀으며 다른 나라들에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려며 압력도 가하였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들을 뻥

질나게 조선반도 주변수역과 남조선상공에 끌어들이고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을 벌리면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해왔다. 지어 핵을 포기안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고 국가가 《완전과파》될것이라는 극악무도한 폭언까지 마구 늘어놓았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그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제재와 위협을 맞받아 나아가면서 병진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왔다. 핵무력완성의 길에서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를 련이어 안아오고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송탄시험의 장쾌한 폭음을 올리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한 때로부터 불과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이룩한것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중의 기적이다.

이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되게 되었으며 공화국의 억센 의지와 힘, 불굴의 기상을 그 누구도 꺾을수도, 돌려세울수도 없다는것을 웅변하여주고있다.

지금 세계가 경탄하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실현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강성변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선물이며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특대사변, 대승리이다. 장장 70여년세월 우리 민족에게 핵공갈을 비롯하여 갖은 죄악을 일삼아온 미국의 침략

과 전횡을 단호히 끝장내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넓은 앞길을 열어나가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핵무력완성의 길에 나서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국가핵무력강화와 완성을 위한 력사적대업수행을 진두에서 조직지휘하시였다.

새형의 첨단로켓개발을 위한 총실계가, 총제작자가 되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주체란개발의 기적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때로는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가시여 기발한 착상도 안겨주시고 때로는 위험한 로켓조립현장에도 장시간 계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

시였다. 새로 개발한 탄도로켓들을 시험발사하는 위험천만한 현장에도 직접 나가시여 발사전과정을 지켜보시였고 시험발사가 성공할 때마다 온 세상이 환해지도록 기쁨의 웃음을 지으시며 개발자들을 치하해주시였다.

그이의 끝없는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마침내 두번에 걸치는 7월의 대사변이 이루어지고 수소탄의 장쾌한 퇴성도 올렸으며 오늘은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도 태어나 공화국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는 력사적패승을 이룩하게 되었다.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으로 끌어올려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최강의 나라로 되게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민족사를 최대로 빛내어주시고 천만년 미래까지 굳건히 담보해주시는 은인중의 은인이시고 령장중의 령장이시였다.

조선인민의 값비싼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공화국의 완성된 핵무력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것이며 천만년길이 빛내야 할 민족의 귀중한 재보이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이룩됨으로써 공화국의 자주권이 더욱 굳건히 수호되게 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민족의 안전을 더욱 튼튼히 지킬수 있게 되었으며 정의의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수 있는 위력한 보검이 마련되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조선을 그 누구도 다칠수 없으며 최후승리는 조선의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진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 영원한 승리의 기치

각 계 층 군 중 의 목 소 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의 빛나는 실현.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안아오신 반만년 민족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거대한 사변이고 빛나는 승리이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장엄한 퇴성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의 인민이 된 자부심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질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핵무력강화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여 국가핵무력완성의 거대한 성공담을 쌓아올리시고 계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외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을 대승리를 마련해주신 천출위인께 우리 대학교직원,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

를 드리고싶다. 그이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천만년미래는 밝고 창창하며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교수, 박사 리 덕 남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성공소식은 우리 연구사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이로써 조선은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신형대륙간탄도로켓무기체계를 보유하고 되었으며 우리의 진군을 악의에 찬 폭언으로 힐뜰고 제재압살책동에 온갖 밀침을 다 쏟아부으며 발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망상은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다.

반만년의 민족사적대업을 이어이 이룩하신 위대한

애국자, 전설적영웅이신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싶다.

아울러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동지, 제일전우가 되여 민족사적대승리를 안아온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우리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은 위대한 강국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마다에 간직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겠다.

국가과학원 연구사 김 철 명

승리의 회열로 막 심장이 터질것만 같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얼마나 거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가를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이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어제는 우리의 가방과 우리의 신발, 화장품이, 얼마전에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 《천리마-804》호프락트르와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이 생산되어 우리 인민을 얼마나 기쁘게 하였는가. 어둠을 밀어내며 거세차게 떠오른 사회주의 강국의 빛나는 《별》은 조선의 힘을 부정할수 없으며 그 어떤 제재와 압살도 조선의 불굴의 신념과 전진속도, 견인불발의 힘을 당해낼수 없음을 세계앞에 여지없이 증명하였다.

위대한 병진로선이 안아온 오늘의 승리를 폐부에 새기고 학생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억세게 키우겠다.

대흥초급중학교 교원 리 경 숙

시 이것이 조선의 대궐이다

리 송 일

우리 민족이 그리도 갈망하던 강국의 기상인가 창공높이 솟구치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어둠의 장막 사르는 저 불출기는 로켓강국위업실현의 장쾌한 선언

만리창공에 수놓는 저 자리길은 력사에 새기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장엄하다 《화성-15》형 우리 땅 우리 하늘 우리 바다를 노려 조금이라도 움쩍한다면 침략자들 불에 덩벼든 부나비신세 되리

제재봉쇄로도 고립압살로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 자강력으로 부강번영하고 정의의 신념으로 억척인 우리 조선

미제가 날칠수록 무서운 보복의 화약 다져지고 미제의 최악이 쌓일수록 미제의 무덤만 더 깊어지리니

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우리 원수님 펼쳐주신 병진의 침로따라 백승의 한길로 날으는 《화성-15》형은 세상에 선언한다 누구도 조선은 건드리지 못한다 조선은 정의의 로켓강국이다

◎ 《백두산8경》 (8) ◎

조선의 자랑이며 세계의 명승인 백두산천지에서 산천어들이 떼지어 노는 풍경은 천하제일명산의 특이한 풍치의 하나로서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산천어도 발견되었다. 바람 한점 없는 날 천지에 저녁노을이 지면 천지산천어들이 먹이를 찾아 물위로 솟구친다.

원래 화산분화구에 생긴 못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것으로 알려져있었다. 백두산천지에서 산천어들이 떼지어 다니는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현상이다. 백두산천지는 그 둘레에 높은 외륜산들이 절벽을 이루고있기때문에 외부로부터 그 어떤 물줄기도 흘러드는것이 없으며 오랜 기간 몇 종류의 하등생물들만이 있었다. 수십년전 삼지연군사람들과 협동하여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은 산천어를 환경순

시킨 다음 천지에 놓아 주어 번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77(1988)년 8월 백두산에 오르시어 지금까지 화산분화구에 생긴 못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백두산천지에 산천어들이 떼를 지어

산다는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현상이라고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1(1992)년 12월 천지의 자연환경에 순응되고 형질적으로 다른 지방의 강과 호수의 산천어와 다른 백두산천지의 산천어를 친히 《천지산천어》라고 이름지어주시였다. 백두산천지물은 맑고 깨끗할뿐 아니라 바다새와 온천을 비롯한 지하수가 많이 포함되기에 광물질 등이 보통물에 비해 많으며 사람들의 건강에 필요한 미

량원소들이 거의 다 들어 있다. 광물질총량이 약 350ppm인 천지물속에는 수소탄산이온, 칼슘, 마그네슘, 칼리움, 나트륨 등이 알맞춤하게 들어있다. 천지물은 위생학적으로도 깨끗하며 그 물맛이 대단히 좋다. 천지에는 산천어가 먹을수 있는 부유식물

량이 7.7kg인 천지산천어가 채집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천지산천어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생물권보호구의 보호대상으로 철저히 보호관리되고있다. 오늘도 낚아 그 수가 늘어나고있는 천지산천어는 백두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고있다.

* * *
참으로 백두산은 천출명장들의 불멸의 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웅장함과 숭엄함, 신비로움과 절묘함으로 자랑높은 천하제일명산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생애와 더불어 세세년년 빛을 뿌릴 《백두산8경》을 태양민족의 만년채보로 길이 전해가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더 큰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나갈것이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연구사 박사 최 근 석

떼지어 노는 천지산천어

과 수중곤충, 천지상공을 날아다니다가 떨어진 곤충들의 양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따라서 먹이원천이 풍부하다. 천지산천어는 9~10월에 천지연안의 부석목래판을 약간 우묵하게 밀어제끼고 1마리가 600~700개 지어 1000개 이상까지의 알을 낳는다. 알을 밑에서 100일이 상 걸려야 알에서 새끼가 까난다. 주체81(1992)년 부터 현재까지 길이가 30~70cm인 천지산천어가 많이 채집되었는데 주체89(2000)년 10월 17일에는 길이가 85cm, 몸질

국가비물질문화유산 가야금제작기술

가야금의 제작방법은 우루이 처음 가야금을 만든 6세기 초엽으로부터 오랜 역사적과정 을 내려오면서 오늘까지 기본상 자기 제작방법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개량되어왔다. 가야금은 첫 시기 12줄로부터 13줄, 19줄로 개량되어왔으며 오늘날에는 21줄로 늘어나 음역을 보다 넓히고 조를을 쉽게 할수 있도록 제작방법이 발전하였다. 가야금의 제작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나무선력과 커기, 말림공정과 제작공정으로 볼수

있다. 가야금의 앞판은 소리를 울림을 형성하는 역할에 맞게 목재의 년륜이 비교적 성근 오동나무로 만들며 소리를 반사시켜주는 진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뒤판은 밤나무, 가래나무, 대추나무 등으로 만든다. 대체로 30년정도 자란 나무가 좋은데 정목벌(널편의 면이 목재의 년륜과 수직이거나 수직에 가깝게 썬 널판)로 썬 앞판과 뒤판, 줄조임판, 마구리, 머리조임판, 울림통의 헤두리장식판, 이동패 등 부품들을 따로따로 만들

어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기본제작공정이 끝나면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나게 하는 인화법으로 도색을 하며 마감으로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줄을 메운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가야금은 구조가 간편하고 탄력이 있으면서도 그 울림이 부드럽고 우아하며 연주법이 다양하고 배우기도 쉬우므로 널리 보급되고있다. 오늘 가야금은 우리식의 배합관현악, 반주음악, 기악곡, 독주곡들의 연주에 쓰이면서 우리 민족음악의 고유한 흥취와 멋을 살리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리규보와 《해좌7현》 (6)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 농사군의 피땀을 빨아 먹고서는 제 팔자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네

이 시는 《농사군에게 맑은 술과 흰쌀밥 먹기를 금지했다는 말을 듣고》의 한구절이었다. 리규보는 어느 시들처럼 이 시도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글줄에 옮겼을뿐이었다. 어느날 개경거리에 있는 무신의 우두머리인 리의민의 집앞을 지나던 리규보는 그 집이 대궐이 왔다 울고갈만큼 하도 크고 요란하기에 적당히 구슬을 대고 들어 가보았다. 솟을대문안에 들어서니 넓은 뜰안에 불당의

본전같이 웅장하고 웅장한 집들이 여러채나 들어앉아있었는데 방마다에서는 희한한 기물이며 희귀한 보물들이 령롱한 빛을 뿌리였고 고간마다에서는 쌀이며 고기, 술이며 비단 등 갖가지 재물들이 차고넘치고있었다. 이 집에서는 개들도 흰쌀밥에 고기국만 먹다보니 이제는 입들이 높아져 그것도 잘 받아먹지 않는다는 말까지 듣고나니 어이가 없어 입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큰 도적이 몇이만 더 있어도 나라는 숨이 막혀 쓰러질것이었다. 하다면 시골살이는 어떠했는가. 천하를 먹여살리는 농사군들이 웃이라고 걸친 것은 하나같이 덧길고 또

덧기운 누더기였고 먹는 것이란 오로지 풀뿌리를 넣고 끓인 뽕떡하고 쓰디 쓴 죽물뿐이었다. 날에날마다 리규보의 눈에는 헛별고 굶주림에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가난한 농사군들의 먼지밖에 없는 집들을 털어 내기 위해 악을 쓰며 돌아치는 아전나부랭이들과 라졸들, 땅인자라는 부자들들의 행패질이 계속 비쳐들었다. 그런 관국인들도 조정이라는데서는 농사군들이 맑은 술에 흰쌀밥을 먹고 사는줄로만 알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으니 이야말로 소가 웃다가 꾸레미러질노릇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농사군에게 맑은 술과 흰쌀밥 먹기를 금지했

다는 말을 듣고》가 적혀 있는 종이말이를 내보이며 《바로 이 시에 백운 거사의 의로운 기백이 실려있거든. 이렇게 진짜 시라고 할수 있지 않겠소.》라고 리인로가 입을 열자 모두가 그렇다고 입을 모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가식없는 칭찬 그대로부터 리규보는 웃으며 리규보는 어쨌든 근 10여년간 피사팔에서 《해좌7현》들과 손을 잡고 《저는 단지 불쌍한 백 고 많은 글을 써냈다.

-2017년 가을철상품전시회-

우수한 상품들로 인기를 모은 전시회

얼마전 평양에서 2017년 가을철상품 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820여점의 질고 다양한 상품들이 출품된 이번 가을철상품 전시회장은 수많은 참관자들로 련일 흥성거리었다. 인기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많이 생산하여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류원신발공장과 평양곡산공장, 원산구두공장에서 출품한 상품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특별히 끌었다. 류원신발공장에서는 다중화, 다양화, 경량화된 각종 운동신들을 출품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가 하면 품위있고 질좋은 고급구두들을 출품한 원산구두공장매대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누구나 즐겨 찾는 우수한 명제품, 명상품들은 식료품매대와 화장품매대에도 그 득히 쌓여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전시된 어린이들의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운동신들

말이요?》 독장사군은 흑시 선비가 소경이 아닌가 해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선비는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날 속임 생각일랑 아예 마시우. 이래봐도 십년동안 바깥출입 한번 안하고 글을 많이 한 내가 가야 유모아》

선비는 돈을 절렁거리며 독장사군에게 갔다. 독장사군은 선비를 데리고 독을 건사한 뒤 울안으로 갔다. 그런데 여름장마때여서 독들을 모두 없애놓은채로 건사해놓고있었다. 《자, 어서 마음에 드는 독을 고르시오.》 선비는 독들을 힐끔힐끔 살피며보고나서 못마땅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에 무슨 독이 있다

니 이런 물건을 어디에 쓰겠소.》 선비의 말에 독장사는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나서 닝큼 독 하나를 들어 바로 세워놓았다. 《자, 이건 뭐요?》 바로 세워놓은 독을 바라보던 선비는 무릎을 탁 치며 좋아하였다. 《이게 바로 독이요.》 독장사는 다시 독을 뒤집어놓았다. 《자, 이건 뭐요?》 선비는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다. 《독이란 참 묘한 물건이군. 바로 세워놓으면 독이 되고 엎어놓으면 다른 물건이 되니 책에도 써여져있지 않는 그 조화를 어떻게 알겠소.》

이 기간 리규보가 써낸 글을 보면 《농부를 대신 하여 읍노라》, 《이불안에서 웃노라》, 《군수 몇놈이 퇴물을 받다가 죄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와 같이 가난한 백성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날카롭게 폭로한 작품들로서 그가 한생 지은 작품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수백편에 이르렀다. 리인로의 《들국화》, 《산중살이》라든가 림춘의 《리담지에게》, 《벗에게》 등 《해좌7현》들의 적지 않은 시들도 이 시기에 창작되고 다듬어진것들이었다. 이렇듯 《해좌7현》들의 영향을 받아 젊은 리규보는 모방과 형식에 치우쳐서 눈물겨운 백성살이를 외면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태평시절》이라 고 미화분식하며 정계에 아무하던 《기로회》와는 달리 당대 사회의 불합리